



### 짜고, 비틀고... 새로 태어난 '아름다운 우리 색'

짜고, 비틀고...  
 고무장갑으로 무장한 아줌마 부대가 더위도 잊은 채 무언가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광주 국립박물관 대강당에서 벌어진 풍경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삼삼오오 빨래를 하는 듯 합니다. 그런데 박물관에서 빨래를 할 리는 만무하고, 자세히 들여다보니 평범한 빨랫감도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주부들 손에 들려진 천은 방금 막 고운 빛깔 옷을 새로 갈아입은 천연 염색천입니다. 지난주 국립박물관에서는 '아름다운 우리 색'이라는 주제로 천연 염색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이 힘든 줄도 모르고 황톳물들이기에 한창입니다.  
 처음해보는 염색이 쉬울리 없지만 천연염색 체험에 나선 참가자들은 우리 고유의 색을 재현하면서 보람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날 주부들의 손끝에서 새로 태어난 알록달록한 천들은 파란 하늘이 내려다보이는 푸른 잔디위 빨랫줄에 의지한 채 살랑살랑 나부끼며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독한 화학 염색약이 아닌 흙내음 가득한 황토로 염색을 할 수 있으니, "우리 것이 좋은 것이어~"라는 추임새가 절로 나왔습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오늘의 유머

#### ■ 어떤 남편

몇 년 동안 백수 생활을 하던 남편이 집에 뛰어들어오며 외쳤다.  
 "여보 기뻐해줘! 드디어 아주 괜찮은 일자리를 구했어!"  
 "정말요? 이제 안 굶어도 되는 거예요?"  
 아내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여보 미안해요. 일자리 구하려 다니는 줄도 모르고 바가지 긁어서..."  
 그러자 남편이 아내의 어깨를 끌어 안으며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그렇게 기뻐하는 걸 보니 너무 좋아. 그럼 당신 내일부터 출근 할 수 있는 거지?"

#### ■ 시대별로 달라요

아이 : 아빠 난 어떻게 태어났어요?

60년대:찌그만 게 별거 다...  
 70년대:다리 밑에서 주워 왔지.  
 80년대:큰 새가 얼마 배꼽 위에 놓고 갔지.  
 90년대:산부인과에서 안고 왔지.  
 2000년대:인터넷으로 다운 받았단다!

#### ■ 사기꾼과 하나님

사기꾼이 죽어서 하늘 나라에 갔다. 하나님을 만난 사기꾼이 물었다.  
 "하나님, 인간에게 10억원이 하나님에게는 1 초 라면서요?"  
 "물론이지!"  
 "그럼 인간의 10억원이 하나님에게는 1원이겠네요?"  
 "당연하지!"  
 "하나님, 그럼 저에게 1원만 적선해 주실래요?"  
 그러자 하나님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다.  
 "오냐, 알았다. 그럼 1초만 기다려라!"

#### ■ 이발사의 아내

한 남자가 이발소에 들어와 이발사에게 물었

다.  
 "머리 깎으려면 얼마나 있어야 하나요?"  
 "1시간쯤이요."  
 남자는 다음에 온다며 그냥 나갔다.  
 며칠 후 그 사람이 다시 이발소에 고개를 들이 밀며 말했다.  
 "머리 깎으려면 얼마나 있어야 해요?"  
 "30분 정도요."  
 그러자 남자가 그냥 나갔다. 이후로도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이발사가 친구에게 말했다.  
 "이봐, 저 친구 따라가서 어디로 가는지 좀 봐 봐."  
 잠시 후 친구가 돌아와 얘기했다.  
 "그 친구 말이야 자네 집으로 가더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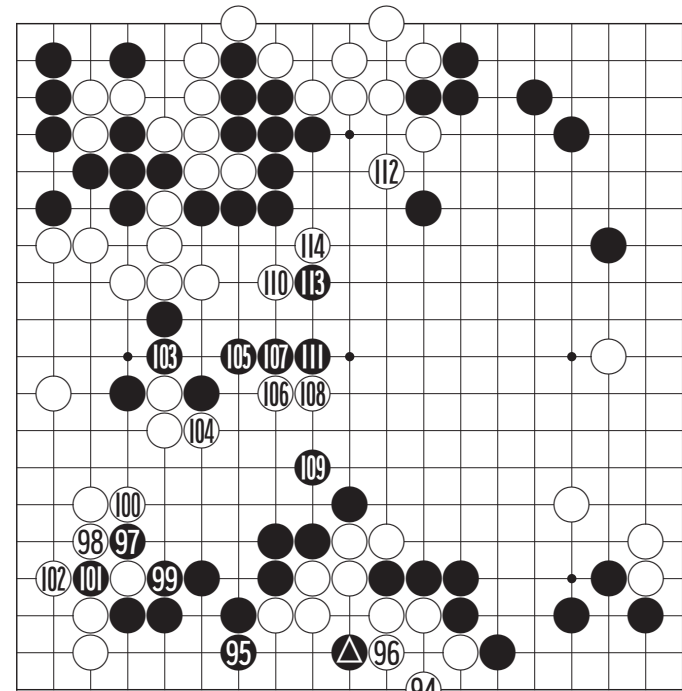
#### ■ 누가 더 빠르게?

두 여자가 밤 길을 걷고 있는데 뒤에서 어떤 남자가 따라왔다.  
 김새를 눈치챈 여자들이 빨리 걷기 시작하자 남자도 빨리 걷기 시작했다. 둘은 다른 길로 갈라져 간 뒤 먼저 도착한 사람이 마을 사람들을 불러 오기로 했다.

한 여자가 죽을 힘을 다해 마루로 뛰어갔다. 잠시 후 다른 여자도 여유있게 달려왔다.  
 "무사했구나. 어떻게 빠져 나왔니?"  
 "그냥 잡혀 왔어."  
 "오! 무슨 소리야?"  
 "그냥 남자 앞에서 치마를 치켜 올렸어."  
 "뭐라고?"  
 "그 남자가 좋다고 바지를 내리더군."  
 "세상에,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그러자 여자가 웃으며 얘기했다.  
 "치마 올린 사람하고 바지 내린 사람하고 누가 빨리 뛰었어?"

#### ■ 하늘과 땅

어느 신혼부부가 소리를 지르며 싸움을 하고 있었다.  
 화가 난 남편이 아내를 보고 말했다.  
 "결혼식 때 주례 선생님이 '남편은 하늘이고, 아내는 땅'이라고 했잖아. 그새 잊어버렸어?"  
 그러자 아내가 지지 않고 소리를 질렀다.  
 "요즘은 땅값이 하늘 위로 치솟는 것도 몰라!"



### 세17회 光日盃

#### 역어지는 흑 대마

4회전 3국 6보 (94~114)

白 허우석 5단    黑 김영수 5단  
 (북구청)            (전남교사회)

흑 ▲로 치중 한 수는 사는 수를 없애면서 백의 응수를 묻는 수로 백의 응수를 보아 다음 수를 결정하려는 의미가 있다.  
 이 수로 인해 흑 95를 얻어낸 것이 아래쪽 흑 대마에 숨결을 불어넣고 있다.  
 그래서 과감하게 103으로 움직인다는 것이 김영수 5단의 생각이었다. 그러나 103으로는 이쪽을 보류하고

### 바둑소식

#### 광주 kixx 극적인 3승

광주 kixx가 지난 10일 마무리된 2008한국바둑리그 경기투어에서 홈팀 경기 한계임을 종합전적 3-2로 꺾고 리그 3승세를 주었다.  
 양팀이 서로 두 판씩 불계승을 주고 받으며 팽팽하던 승부는 가장 늦게 끝난 3국에서 결정났다. Kixx 송태곤 9단이 한계임 손소진 4단을 반집으로 꺾고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다. 박정상-이창호 9단은 각각 한게임 김주호 8단과 이영구 7단을 제압하며 팀 승리를 견인했다.  
 kixx는 3승6패로 한게임, 티브로드와 동률을 이뤘지만 개인 승수에서 뒤져 여전히 최하위인 8위를 기록 중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12일(음 7월 12일 甲戌)

子	36년생 신중하게 처신해야 좋으리라. 48년생 산 넘어 산이니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한다. 60년생 자신의 주가를 몰입 수 있는 활동에 집중하라. 72년생 시비에 휘말리니 결어도 가지라. 84년생 생외부는 시끄러워도 내부는 편안하다. 행운의 숫자: 08, 45
丑	37년생 이해와 배려에 노력해야 한다. 49년생 사소한 언쟁이 있으나 예정은 새롭다. 61년생 가슴이 늘어지지만 먹을 것이 없구나. 73년생 늘 생각하고 있던 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85년생 모든 지혜를 총 동원하면 해결된다. 행운의 숫자: 05, 33
寅	38년생 지나간 일이지만 다시 새겨보라. 50년생 상황이 어려워 지지만 마음은 편하다. 62년생 외출을 삼가 하고 심상을 편하게 하라. 74년생 자신 있게 행동하면 크게 성공하리라. 행운의 숫자: 22, 27
卯	39년생 건강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것이 좋으리라. 51년생 직장과 자식에게서 좋은 소식이 온다. 63년생 병은 작을 때 잡아라. 75년생 가능한 한 변화를 주지 않으면 해는 없으리라. 행운의 숫자: 02, 35
辰	40년생 돈 구를 잡지 말고 현실로 돌아오라. 52년생 대화는 없으니 급할수록 돌아오라. 64년생 구설수에 오르니 행동을 바르게 해야 한다. 76년생 생각지도 않은 돈이 생기자 쓸 곳은 바로 생긴다. 행운의 숫자: 10, 26
巳	41년생 새로운 인생의 준비를 해보라. 53년생 기다리던 사람에게서 일찍이 소식 온다. 65년생 쉼 먹고 알 먹는 좋은 일이 생기니 결과는 반반이다. 77년생 새로운 일이 생기니 진행을 늦추라. 행운의 숫자: 04, 27
午	42년생 새벽부터 서둘러라 급한 일이 생긴다. 54년생 하루 종일 바쁘지만 소득은 기대마라. 66년생 부부간에 오해가 생길 일이 생길 수도 있으나 나쁜 일은 없다. 78년생 고차질하는 수하인이 사람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15, 40
未	43년생 재물을 나누라 또다시 모아진다. 55년생 주변인에게 모진 말을 시킬 수도 있으니 삼중으로 행하라. 67년생 다 큰 아들에 재 뿌리는 옛 사람을 조심하라. 79년생 한 시가 바쁘니 시간을 아껴 써라. 행운의 숫자: 09, 36
申	44년생 전정은 치열하나 군림이 없는 형국이니 안타까울 뿐이다. 56년생 세상이 급변해도 지켜야 할 것은 있다. 68년생 죽 마고우의 친구를 잊지 말고 옛 정을 찾아라. 80년생 생각지도 않은 큰 소비가 생긴다. 행운의 숫자: 13, 25
酉	45년생 옛것에 연연하지 말고 새로운 것을 찾아라. 57년생 서두르면 실패하니 전후를 살펴라. 69년생 독물같은 없으니 상대방도 존중하면 시비는 없으리라. 81년생 대강과 완다리에 이상이 있을 수다. 행운의 숫자: 06, 26
戌	46년생 금의아행적이나 빛이 나지 않는다. 58년생 어려움은 닥쳐도 지혜는 생소하다. 70년생 능력을 발휘하니 공로가 없어 가슴이 답답하다. 82년생 자신의 능력을 모함하는 자가 나타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19, 37
亥	47년생 급하게 서두르면 불리하니 여유 있게 생활하라. 59년생 결정을 내렸어도 다시 한번 점검하라. 71년생 이리저리 저리저도 못하는 형국이 빠진다. 83년생 세상이 급변해도 지켜야 할 것은 있다. 행운의 숫자: 07, 29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DermaPlast

**더마플라스트 밴드**

제품구입문의: (주)호원약품 062-383-5883

<p>굿모닝 잉글리쉬 &lt;1122&gt;</p> <p>Are you serious? 진담인가요?</p> <p>A : How were your grades this semester? B : Fine, except Chemistry. I got an F. A : Are you serious? I can't believe you failed Chemistry. B : I know. I thought I passed the test for sure.</p> <p>A : 이번 학기 성적 좋아? B : 좋아, 화학을 빼놓고서 말이야. F를 맞았거든. A : 정말이야? 자네가 화학에서 실패를 했더니... B : 그래, 틀림없이 시험에 통과했다고 생각했는데...</p> <p>* semester : 학기 * grade : 학점, 성적 * for sure = 틀림없이</p> <p>&lt;동아 외국어학원 제공&gt; www.donga.tv ☎ 222-6253</p>	<p>오하오우 니혼고 &lt;1122&gt;</p> <p>私はどこへもいきたくありません。 저는 아무데도 가고 싶지 않습니다</p> <p>A : 今度(こんど)の夏休(なつやす)みにどこへ行きたいですか。 B : 私はどこへもいきたくありません。 A : 私は海外旅行(かいがいりょこう)に行くことにしました。 B : うらやましい。</p> <p>A : 이번 여름휴가 때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B : 저는 아무데도 가고 싶지 않습니다. A : 저는 해외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B : 부럽다.</p> <p>夏休(なつやす)み : 여름휴가 海外旅行(かいがいりょこう) : 해외여행</p> <p>&lt;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gt; http://kglobal.wo.to ☎ 228-2545</p>	<p>니하오 쑹구위 &lt;199&gt;</p> <p>怎么走? 어떻게 가요?</p> <p>A : 请问, 韩国银行怎么走? Qǐng wèn, hánguó yínháng zěnme zǒu? 질문, 한국은행 어떻게 가요? B : 从这儿往前走就到。 Cóng zhèr wǎng qián zǒu jiù dào. 여기에서 앞쪽으로 가면 됩니다. A : 谢谢。 xièxiè. 사예 비례. B : 不客气。 bùkèqì. 부러워 A : 감사합니다. 한국은행 어떻게 가요? B : 여기에서 앞쪽으로 가면 됩니다. A : 감사합니다. B : 천의명요.</p> <p>銀行 [yínháng] 은행 怎么 [zěnmě] 어떻게 从 [cóng] ~에서부터 往 [wǎng] ~쪽으로</p> <p>&lt;광주중국어학원(상무지구 금호대우A)&gt; ☎ 383-1605</p>	<p>한자 이야기 &lt;839&gt;</p> <p>一字師(일자사) 한 일, 글자 자, 스승 사</p> <p>일자사(一字師)는 일자지사(一字之師)라고도 하는데, 한 글자를 가르쳐 준 스승이라는 뜻이다. 시문(詩文)에서는 글자 한자를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 생동감이 다르게 느껴진다. 훌륭한 문장이 되도록 깨우쳐준 스승을 일자사라고 비유한다. 중국 당(唐)나라 때의 시인 정곡(鄭谷)에게 어느 날 제기(齊己)라는 스님이 여러 편의 시고(詩稿)를 가지고 찾아왔다. 그중 '일찍 핀 매화(조매·早梅)'라는 시 구절 속에 '야마들이 깊은 눈 속에 파묻혔는데 (전촌심설리·前村深雪裏) / 어제 밤에 매화 몇 가지에 꽃이 피었네 (작야수지개·昨夜數枝開)..'라는 구절이 있었다. 이를 본 정곡이 말하길, "몇 가지(數枝)는 '일찍 핀 매화(早梅)'라는 시제(詩題)에 맞지 않으니 '한 가지(一枝)'가 좋을 것 같소."라고 하였다. 그렇게 바꾸고 보니 과연 시 전체의 느낌이 달라졌다. 이에 스님은 정곡에게 큰 절로 감사를 나타냈고, 사람들은 정곡을 가리켜 '일자사'라고 불렀다. (唐詩紀事) 이 말은 한자가 음과 뜻이 독립되어있는 고립문자라는 성격에서 비롯되었다. 문장의 글자뿐만 아니라 생활에서 정곡을 찌르는 지적을 해주는 스승에게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p> <p>&lt;한예원(韓藝媛)&gt;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230-7353</p>
---	--	--	--